(제169회-본회의제2차부록)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중구 유치 결의안

(권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76

발의연월일 : 2014. 7. 15.

발 의 자 : 권태호·김영길·강혜순·김순점·이효상·서경환·신성봉·김선수·김경환·이복희·하경숙의원(11명)

1. 주 문

붙임 **"결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가. 지난 13일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1차 후보지로 중구 다운동 다운목장터가 선정됐다. 중구의 추전대상지인 다운동 지역은 뛰어난 지리적 접근성과 혁신도시와의 연계성, 체류형 관광객 유인효과,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 등을 지니고 있어 산업기술박물관 건립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유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나. 중구는 산업수도 울산의 중심에 위치해 있지만 그동안 산업중심의 개발논리에 밀려나 각종 혜택에서 소외되면서 도시는 쇠퇴를 거듭해 왔다. 최근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울산의 정체성을 담은 역사와 전통, 문화를 모티브로 24만 구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노력과 함께 산업기술박물관 유치는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는 시너지 효과가 될 것이다.

2. 주요내용

가.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후보지 가운데 중구 다운동 다운목장터는 그 어느 대상지역과 비교해도 지리적인 접근성이 뛰어나고 새롭게 조성된 혁신도시와의 연계로 울산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체류형 관광산업을 주도해 나갈 최적지로 손색이 없다.

나. 중구는 문화의 전당과 시립미술관이 건립되고 태화강대공원과 십리대밭을 비롯해 420년 만에 재건된 태화루, 한글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외솔기념관 등 산업기술박물관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보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풍부하고 그동안 울산의 성장에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던 침체된 도심을 되살려 울산 관광벨트의 한 축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기타사항

○ 보낼 곳 : 울산광역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중구 유치 결의안

지난 13일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1차 후보지로 중구 다운동 다운목장터가 선정돼 24만 구민이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중구는 산업수도 울산의 중심에 위치해 있지만 그동안 산업중심의 개발논리에 밀려나 각종 혜택에서 소외되면서 도시가 활력을 잃고 쇠퇴를 거듭하고 있다.

최근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울산의 정체성을 담은 역사와 전통, 문화를 모티브로 24만 구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어 이번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이 중구에 유치되면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중구의 추천대상지인 다운동 지역은 뛰어난 지리적 접근성과 혁신도시와의 연계성, 체류형 관광객 유인효과, 수려한 자연경관 등으로 산업기술박물관 건립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구가 울산의 중심으로 종갓집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난 반세기 성장의 그늘에 가려 각종 혜택에서 밀려났던 24만 구민들의 그간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를 위해 24만 구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산업기술박물관 유치를 희망하는 중구 다운동 다운목장 부지 22만㎡는 KTX울산역에서 25분, 울산공항에서 2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동해안을 잇는 옥동~농소간 국도(7번국도)와 3분 거리에 불과하는 등 지리적 접근성이 그 어느 곳보다 뛰어난 강점을 지니고 있다.

하나. 중구는 혁신도시 내 조성예정인 복합쇼핑몰과 비즈니스호텔 등으로 체류형 관광산업을 주도해 나갈 최적지로 손색이 없고 문화의 전당, 시립미술관, 태화강대공원, 십리대밭, 외솔기념관 등과 함께 울산을 대표하는 역사, 문화 자원을 산업기술박물관과 연계, 체류형 관광도시 울산 구축의 초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나. 중구 다운동 목장용지는 주변에 친환경적 생태공간이 마련돼 자연 그대로를 보고, 즐기는 테마파크로 손색이 없어 가족단위 체험 관광객 유치에 강점이 될 수 있는 관광콘텐츠가 풍부하다.

하나. 중구에 산업기술박물관이 건립되면 울산의 중심이란 상징성과 함께 시립미술관과의 연계로 '역사-문화-산업'이 조화를 이룬 관광인프라 구축이 이뤄져 각 구·군별 관광자원 배분으로 울산을 하나의 관광도시로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

하나. 우리 중구의회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중구 건립의 당위성을 담아 24만 구민과 함께 적극적인 유치 의사를 결의하는 바이다.

2014년 7월 15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